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❼ 구산선문의 선사상



▶ 한줄 요약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늦게 형성된 수미산문은 유일하게 중국 조동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깨침 안주하는 것 경계한 조동종 '괄골선'

〈刮骨禪〉

한국선의 수입과 태동의 역사는 중국선과의 관련성을 차치하고는 논의하기가 어렵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지리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일찍 발전을 구가했던 중국의 불교 역사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근지역에 보급되어갔다. 신라 말기에 수입된 선법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시작점을 중국선종의 제사조 도신의 동산법문에 두고 있는 점은 보편적인 상식에 속한다. 이후로 신라 말기 고려 초기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소위 구산선문의 성격은 이런 점과 비교하여 한국선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듯이 중국선종의 경우에 당대 말기 및 오대 초기의 백여 년이라는 시기에 걸쳐 형성되었던 선종오가와 거의 동시대에 같은 시기에 걸쳐 신라 및 고려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 국한시켜보아도 구산선문은 한국선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선의 영향을 지대하게 수용하면서도 고려시대에 나름대로 독자적인 선풍을 구가했던 조동가풍의 수미산문은 선종오가 가운데 가장 일찍이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중국법맥을 수용하여 전개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미산문의 형성은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중국선 가운데 조동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던 점에서 기타의 여덟 개의 산문과 차별되기도 한다. 중국의 조동종은 동산 양개(洞山 良价, 807~869)와 그의 문하인 조산 본적(曹山 本寂, 840~901) 및 운거 도응(雲居 道膺, ?~902)으로 계승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신라의 유학승이 조산 본적의 문하에는 보이지 않음에 비하여 운거 도응의 문하로 많이 모여들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행지면밀(行持綿密)한 조동가풍의 성격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조동종의 가르침에 보이는 성격에 대해서는 〈조당집〉 제8권의 내용을 엿볼 수가 있다. 곧 생사일대사를 결택해야 한다. 결택할 때엔 마치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고, 부지런히 지극한 도를 구할 때엔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하여 해야 하며, 마치 불길이 몸을 핍박하는 것처럼 반드시 모든 반연을 버리고 그 가운데 뛰어들어 사사물물에 투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출가납자로서 자기의 주체성을 확립할 것과 생사일대사를 해결해야 할 것을 고구정녕하게 설하고 있다. 의·식·주와 행·주·좌·와의 전반에 걸쳐 일상의 수행생활과 밀착된 구체적인 질문을 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운거가 지도했던 교단의 남다른 점이 엿보인다. 이것은 특히 조동종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도면밀(周到綿密)과 용의주도(用意周到)의 정신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선풍이 바로 괄골선(刮骨禪)이었다. 평소의 행위에서 어느 것 하나도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이 마치 뼈를 깎아내듯이 엄격한 수행과 자신에 대한 의지의 자립을 강조한 말이다. 동산 양개의 괄골선은 운거 도응이 계승하였다. 괄골선은 선자들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집착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자기 자신에 의하여 언어가 지니고 있는 진실한 의미를 자각할 것을 강조하는 선풍을 가리킨다. 그것은 마치 신체에 들어간 독은 뼈를 쪼개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점에 비유한 것이다. 독이란 분별을 의미하는데, 언어로 표현된 관념을 특별하게 중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당대 말기 당시의 선지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특수한 언어방식이나 방(棒) 및 할(喝)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제자들이 허위허세를 부리는 경향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꾸짖는 교화 방편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유행시켰다. 그러한 것과 구별되는 동산의 준엄한 선풍으로 출현한 것이 바로 괄골선이었다. 그리고 수행으로 얻게 되는 결과로서 공훈(功勳)에 떨어지는 것, 이를테면 깨침의 세계에 안주하는 것까지도 강하게 경계하였다. 깨침에 안주하는 것마저 경계한 것은 이후로 조사선풍의 전통으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은 출가인의 마음자세에 대한 강조는 당시

수미산문, 조동종 직접 영향받아
뼈깎는 엄격한 수행과 자립 강조
언어가 지닌 진실한 의미를 자각



강서성 의풍 동산 보리사에 있는 동산 양개의 탑. 당우안에 양개의 탑이 모셔져 있다.

에 해동의 사무외대사(四無畏大士)라고 불렸던 이엄(利嚴)·경유(慶猷)·형미(逈微)·여엄(麗嚴) 등 기타 고려 초기에 중국의 조동종풍을 해동에 전래한 선자들의 면밀한 행지와 깊은 관련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엄은 속성이 김(金)씨로서 오늘날의 충남 서산 태안면에서 870년에 태어났다. 출가하였고, 17세 때 구족계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지계청정의 삶으로 주도면밀하고 용의주도한 가풍을 몸에 익혔다. 27세(896) 때 입당하여 운거의 문하에서 수행하여 인가를 받고 42세(911)에 귀국하였다. 이후 승광산(勝光山)의 사찰에 12년 동안 주석한 후에 영각산(靈覺山)의 토굴에 주석하자 귀의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때 태조의 칙을 받고 왕사가 되어 태흥사(泰興寺)에 주석하였다. 63세(932) 때 개경의 서쪽 해주의 남쪽에 광조사(廣照寺)를 짓고 주석하다가 67세(936)에 좌화(坐化)하였다. 이엄의 가르침인 "대저 도란 곧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대상의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지 결코 타인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은 일찍이 운거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고스란히 수용한 것이었다. 이엄이 운거를 친견하고 인가받은 내용은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다. 동산의 종지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동산의 법을 중흥시킬 자는 바로 그대이다. 이제 내 가르침은 그대로 말미암아 동국으로 흘러갈 것이니, 시절인연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면밀한 괄골선의 전승자로서 운거의 인가를 받은 이엄은 귀국한 이후에도 항상 게으름이 없었고,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엄은 태조의 후원을 받아 수미산의 일파를 이루었다.

경유의 속성은 장(張)씨이다. 15세(885) 이후로 선지식을 참하였고, 18세(888) 때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선법을 닦기 위하여 입당하여 운거 도응에게 참문하였다. 운거 도응은 "말을 걸어보면 선비임을 알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이라면 그는 곧 만 리에 떨어져 있어도 그 교화를 떨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심인(心印)을 전승하였다. 38세(908) 때 귀국하였고, 전란을 피해 산속에 묻혀 살았지만 고려의 태조는 경유를 왕사로 예우하였다.

형미의 속성은 최(崔)씨이다. 장흥 보림사로 가서 보조 체징(普照 體澄)의 가르침을 받았다. 19세(882) 때 화엄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입당하여 운거 도응을 친견하자, "그대가 돌아왔으니 미리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대가 법을 펴고자 하니 법의 보배가 감추어져 있는 곳을 알려 주겠다."고 기뻐하였다. 42세(905) 때 귀국하여 무위(無爲)의 갑사(甲寺)에 주석하였다. 태조의 청을 받고 개경에 나아가서 자취가 끊어진 공사상에 대한 법문을 하고 선리(禪理)를 설하였다. 54세(917)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여엄의 속성은 김(金)씨이다. 9세(870) 때 무량갑사(無量壽寺)의 주종법사(住宗法師)에게 출가하고 화엄교학을 익혔다. 19세(880) 때 구족계를 받고, 이후 안거를 나면서 계를 철저하게 지켰다. 이후 선종에 입문하여 보령 성주사 광종무염국사(廣宗無染國師)에게 참문하고 입당하여 운거 도응의 문하에 들어갔다. 이에 운거 도응은 "그대와 이별한 지가 그다지 멀지 않은데 여기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내가 여기에 있을 때 그대가 찾아 온 것이 다행이구나."라고 하면서 여엄을 위해 법을 아끼지 않았다. 법을 전수받고 귀국할 즈음에 운거는 "그대가 나면서 울 곳은 바로 고국이니 속히 돌아가거라. 내가 바라는 바는 진공(眞空)을 진작하여 우리의 선종을 빛나게 하며 법요를 잘 보존하는 책임이 그대에게 있음을 명심하라. 그리고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하였다. 48세(909) 7월에 귀국하여 충주 월악산과 경북 영주에 머물다가 소백산으로 들어갔다. 이후 태조의 초청을 받아 개경에 나아갔고, 태조의 주선으로 지평의 보리사(菩提寺)에 들어가 교화를 하다 69세(930) 때 입적하였다.

이들 사무외대사 가운데 형미와 여엄은 공사상에 근거한 가르침을 펼쳤고, 이엄과 경유는 심법의 본성을 깨쳐 일상화에 근거한 법을 펼쳤다. 이것은 사무외대사가 지니고 있는 사상의 전반적인 기조는 당시 전란으로 혼란했던 국내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점은 중국에서 선종이 일찍이 경험했던 법난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 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 주로 산악형의 자급자족을 유지하고 있었던 선종의 교단은 법난을 계기로 하여 오히려 교학불교와 상대적으로 새롭게 번창하여 독자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선풍을 드날리게 되었다. 곧 전통적인 경전의 연구나 주석과 틀에 박힌 계율의 생활을 벗어나 임운무작(任運無作)의 일상생활을 실천하였는데, 그러한 평상시의 생활에서 불법의 참된 정신을 구현하는데 앞장섰던 선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시까지의 일체의 형식과 교의에 걸림이 없이 자유로운 선풍을 펼칠 수 있는 전환기가 되었다. 그것은 한 결 같이 위의(威儀)가 적절하게 갖추어진 선자들의 면모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유학하여 이와 같은 행지면밀의 조동가풍을 전승한 신라의 선자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일찍이 유학했던 선법 전래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교학을 공부하고 새롭게 눈뜬 선법에 대하여 그 한계를 느끼고 입당하였다. 둘째는 귀국하여 왕실과 유대관계에 의하여 왕사 내지는 국사에 책봉되어 실질적인 국사의 자문역할을 하였다. 셋째는 수미산의 이엄과 동리산문의 경보(慶甫)를 제외하고는 소위 구산선문과 관련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넷째는 현실생활에 대한 강한 긍정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사무외대사를 비롯하여 운주(雲住) 및 경보, 기타 다수 조동선법의 전래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고려가 삼국통일을 달성하기 이전으로 아직은 전란이 계속되고 있는 무렵이었다. 따라서 현실생활에 대한 강한 긍정의 사상과 아울러 그로부터 초연하려는 공사상의 기반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절이었기에 가능하였다. 이처럼 조종종풍의 성격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도면밀하고 용의주도한 사상이었기에 그 시기에 가장 소용되는 가르침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나말여초의 제2기 선법 수입기에서 선종오가 가운데 조동종풍이 주류로 전래된 이유였다.

〈동국대 HK교수〉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